



보도 일시	배포시	배포 일시	2022. 8. 22.(월) 15:00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 이승한 (044-215-2730)
		담당자	사무관 유근정 (rmswjd90@korea.kr)

최근 무역수지 동향 관련

□ 무역수지는 `22.7월 △48억불로 최근 흑자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

* 무역수지(억불): ('22.1)△49 (2)9 (3)2 (4)△24 (5)△16 (6)△25 (7)△48

□ 최근 무역수지 적자는 연초부터 이어진 에너지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, 에너지수입 확대폭이 매월 무역수지 적자폭을 상회하고 있음

* 원유가스·석탄수입 확대폭(억불, 전년동월비): ('22.1)92 (2)45 (3)84 (4)71 (5)67 (6)53 (7)88

○ 에너지수입 확대의 영향으로, 우리 뿐 아니라 일본,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무역수지 악화를 경험 중

※ 참고: 주요국 무역수지 추이

	'22.1	2	3	4	5	6	7
일본(억엔)	△21,994	△6,772	△4,240	△8,538	△23,906	△13,985	△14,367
프랑스(억유로)	△119.8	△124.5	△158.9	△147.7	△166.2	△151.3	-
이태리(억유로)	△51.3	△17.7	△2.3	△36.4	△0.6	△21.7	-
유로존(억유로)	△277.2	△90.5	△175.8	△331.2	△283.6	△246.2	-

□ 아울러,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수출(가공·중계무역 등) 확대 등 최근 무역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, 재화 수출입과 관련하여서는 상품수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측면

○ 상품수지는 중계무역 호조 등 영향으로 6월까지 흑자 지속 중

* 상품수지(억불): ('22.1)8 (2)43 (3)56 (4)29 (5)27 (6)36

중계무역순수출(전년동기비, %): ('22.1)10.6 (2)4.4 (3)19.3 (4)22.1 (5)40.2 (6)50.5

※ 참고: 상품수지와 무역수지 차이

	상품수지	무역수지
① 해외생산 수출입	▶ 포함	▶ 미포함 (통관선을 거치지 않는 경우)
② 운임·보험료	▶ 수입에 운임·보험료 미포함 (FOB)	▶ 수입에 운임·보험료 포함 (CIF)
③ 계상시점 (예: 선박)	▶ 경제적 소유권 이전 시 계상 (예: 건조단계마다 나누어 계상)	▶ 수출입 신고수리 시 계상 (예: 최종인수 시 한번에 계상)

□ 외환수급 등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재화 수출입 뿐 아니라 서비스교역, 해외투자 소득 등 대외부문과의 경제적 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가 보다 유용한 지표

- 경제가 성숙할수록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배당·이자소득 등이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, 우리나라도 본원소득수지가 '11년 흑자로 전환된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

* 본원소득수지(억불): ('09)△34 ('11)54 ('13)75 ('15)45 ('17)53 ('19)129 ('21)193

- 경상수지는 해외생산 수출 확대 및 소득수지 흑자 등으로 6월까지 비교적 건조한 흑자 기조를 유지 중

* 경상수지(억불): ('22.1)19 (2)64 (3)71 (4)△1 (5)39 (6)56 <상반기 248억불>
<4월은 외인배당 지급 집중으로 통상 적자>

□ 정부는 향후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등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,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노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

- 8월 중 중소·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, 주요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및 규제개선·현장애로 해소 등 내용을 포함한 수출 종합대책 및 해외수주 활성화 대책을 마련·발표할 계획
- 수출품목·지역 다변화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, 에너지관리 효율화 등 구조적인 무역체질 개선 노력도 지속 병행